

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과 새로운 선교신학: Missio Dei

“대화”(Dialogu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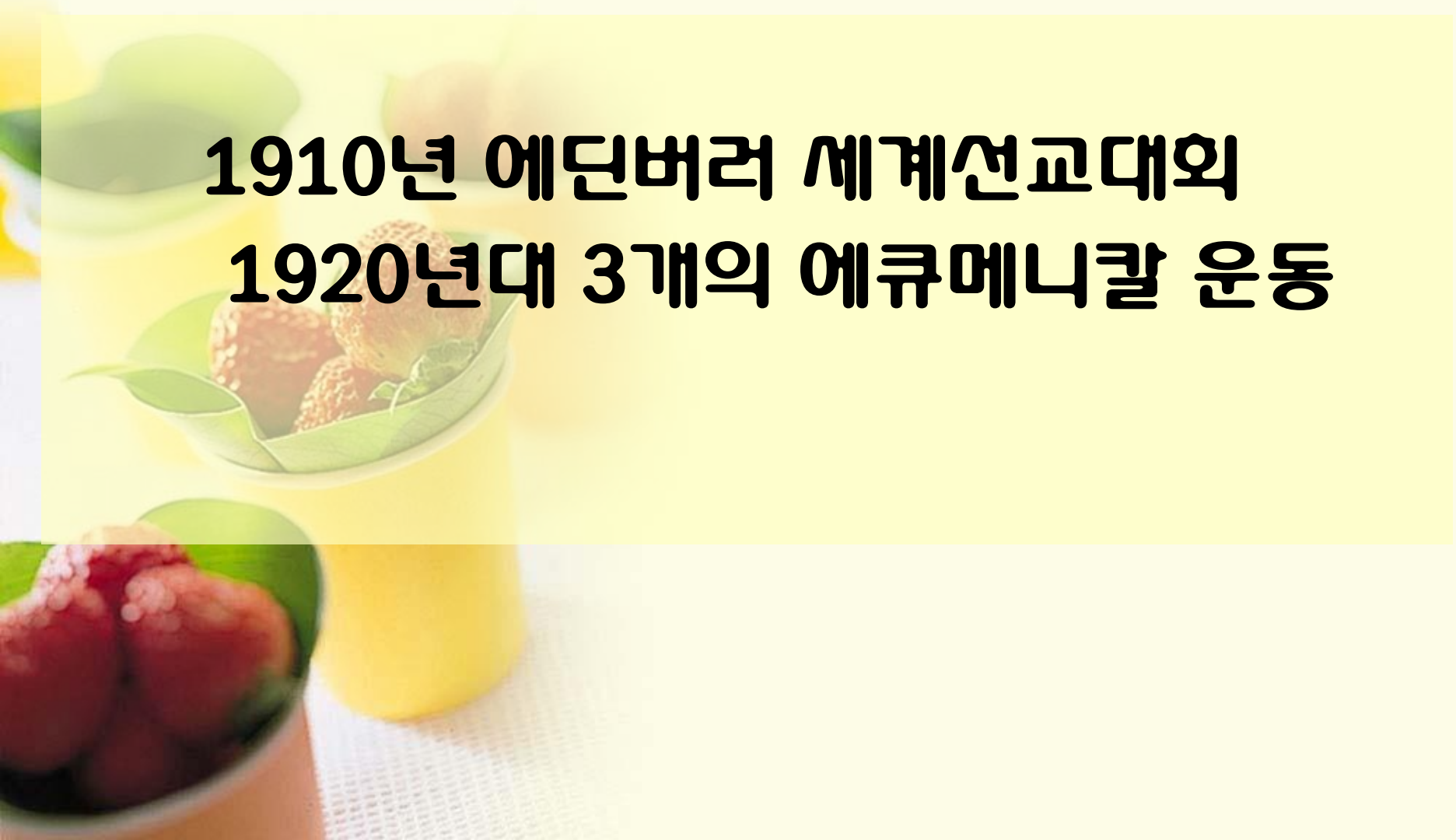
“하나님의 선교”(Missio Dei)

“사도직의 신학”(Theologie des Apostolats)

‘복음주의적 입장’

<선교정책원론의 배경>

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
1920년대 3개의 에큐메니칼 운동



세계선교협의회(1921년)

I.M.C(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)

신앙과 직제(1925년)

Faith & Order

생활과 실천(1927년)

Life & Work



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 (자료사진)



1928년 2차 예루살렘 대회 (자료사진)



1938년 3차 마드라스 대회 (자료사진)

1948년 W.C.C. 탄생

(World Church Council)

-생활과 실천(Life & Work) , 신앙과
직제(Faith & Order) 두 기관은 1948
년 병합됨으로써 WCC를 설립.





1948년 WCC 설립 (자료사진)

IMC 선교대회 1~6차

1차 레이크 모흥크(1921년)

2차 예루살렘(1928년)

3차 마드리스(1938년)

4차 위트비(1947년)

5차 윌링겐(1952년)

6차 가나(1958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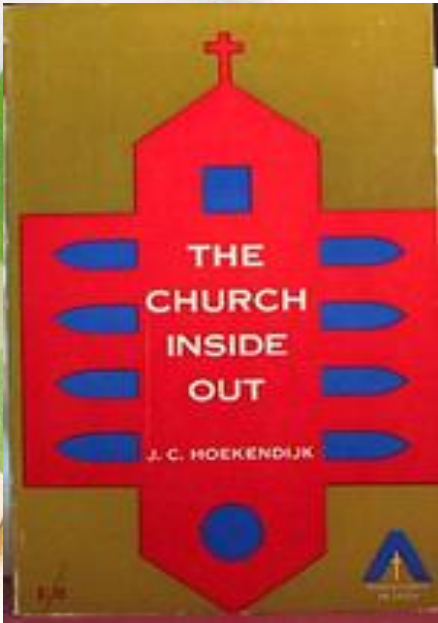
WCC와 합병(1961년)



IMC 선교대회

<5차 1952년 월링겐 대회>

호킨 다익(J. C. Hoekendijk)의
하나님의 선교(Missio Dei) 유입



호킨다익의
『흘어지는 교회』

1961년 WCC와 IMC의 통합

- WCC와 IMC가 통합된 후 WCC 안에 Old Evangelism 주의자들 떠남.
- WCC안에 복음주의적인 색채 흐려림.



• WCC 1968년 웁살라 대회

- 복음주의와 진보주의가 결별하는 계기가 됨.
- 선교의 목표를 샬롬이라고 정의함.

유색인종의 해방

산업사회의 인간화

농촌사회발전

직장윤리 추구 등

- 선교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지향하는 인간화에 있다.





1968년 WCC 4차 총회 (자료사진)



독 일:

1971년 『 인간화 』 출간

미 국:

Missions: Which Way?

Humanization or Redemption?

한 국:

선교정책원론(宣 敎 定 策 原 論)

『 프랑크푸르트 선언문 』 의 기초가 됨

피터 바이어 하우

스

<선교정책원론 내용>

1. 고전적 선교의 위기와 문제점

화란의 신학자 **보에티우스**의 선교의 과제를 상실:

이방인을 회개 시킨다.

교회를 세운다

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고 선포한다.

<선교정책원론 내용>

고전적 선교의 위기를 맞게 된 이유:

반서구적 민족주의 운동

종교혼합주의 신학 발생

종교적 문제를 정치적 사회적 관심으로 대체

P. Beyerhaus의 대화-프로그램 비판:

- 바이어하우스: 『인간화』 출판 (1969)
- 선교의 목적인 하나님께로의 회심과 교회설립이 중단
- 교회의 연합운동을 인류연합운동으로 확대하였
다 혼합주의적 보편종교(synkretistische
Universalreligion)를 추구

『인간화』

프랑크푸르트 선언문(Frankfurter Erklärung)의 기초가 됨(1971)

- 인간화의 내용:
-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중심 사상으로 변한 것
-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인간만을 바라봄
- 하나님 찬양 없는 이웃사랑
-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실현하려는 왜곡된 신념
- 성령과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회 혁명의 사명자로 이해한 교회관
- 그리스도가 비그리스도인을 통해 말씀하심으로써 기독교인들의 한계를 극복하여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릇된 “대화”의 목적

바이어하우스의 “대화”의 바른 의미

- 1. 대화는 인간 대 인간으로써 만나서 잃은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 해 주는 것
 - 2. 하나님의 진노와 죄악과 죽음과 악령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하고
 - 3.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접촉점을 찾게되는 것,
 - 4. 악령에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들을 분별함
 - 5. 대화의 목적은 진리를 발견해 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다주는 것
-
- Beyerhaus, P., *Krise und Neuaufbruch der Weltmission*, Bad-Liebenzell 1987, 107-109.

프랑크푸르트 선언문:

- WCC 총회에 퍼진 “익명의 그리스도”가 타종교들과 역사적 변천과 혁명들 속에 계시되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도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발견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 배척.
- 그리스도를 윤리적인 본보기나 박애원리로 제한한 사상 배척.
- 구원은 오직 온 인류를 위해 단 일회적으로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근거하여 주어진다.
- 교회는 설교와 성례와 봉사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증거한다.
- 각 개인은 결단과 회개와 신앙을 통하여 영생에 이른다.
- 온 인류가 자동적으로 이미 거듭난 것이 아니고,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평화가 수립 되는 것이 아니다.

로잔언약의 “대화”

- 제3항: 그리스도의 유일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편성을 강조,
- “그리스도께서 어떤 종교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식의 대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손상시킴으로 이를 거부한다”
- 자동구원관 배척,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있음을 명시
- 제4항: “전도하기 위하여” 대화를 경청하는 것을 불가피한 일이다.

호켄다익의 Missio dei 신학:

- **교회**는 하나의 **존재(being)**가 아니라 선교의 **기능(function)**일 뿐이다.
- 하나님은 천사들(Engel), 선지자들, 말씀, 메시아, 아들, 영(Geist), 사도, 교회 등을 선교사로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.
Hoekendijk, J. C., Bemerkungen zur Bedeutung von Mission, in; *Mission als Strukturprinzip*, Genf 1965, p. 33.
- 이 세상을 **구원**한다는 말은 Missio Dei의 목표인 바 **평화 (Shalom)를 수립하는 것**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.
- 평화는 개인 구원 이상의 것이며, 그것은 동시에 평화, 통합, 공동체, 조화 및 정의다.
-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, 바로 그것이 Missio Dei이며,
- **교회란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(Missio Dei)에 참여하는 바로 그 기능일 뿐이다.**

에큐메니칼 Missio Dei 신학:

- 일원론적 역사관으로서 구속사와 세속사 내지 교회와 세상의 이중 역사를 부정한다.
-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 한다.
- 교회는 세상의 일부다.
-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은 놓쳐 버렸다.
-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에 이웃을 만난다.
- 하나님께로의 회심 대신에 이웃에게로 회심한다.
- 하나님의 화해 대신에 인류 공동체를 추구한다.
- 복음의 절대성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부한다.
- 보편주의 및 상대주의,
- 다른 종교들 속에도 “그리스도”, “성령의 역사”, 그리고 “구원”을 인정한다.
-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를 추구
- 종래의 “선교”는 해방운동 및 개발, 의식화운동, 정의 및 인권운동 등으로 바뀌게 되었다.
- 결국 하나님께로의 회개도 성령의 역사도 없음으로(행2:28) 구원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(눅12:4,5).

칼 하르텐슈타인의 '하나님의 선교' 신학

Missio dei

- Hartenstein, K., "Theologische Besinnung", in: *Mission zwischen Gestern und morgen*, Stuttgart, 1952, 54, 62. "Die Mission ... ist **Anteilhabe** an der Sendung des Sohnes, der **Missio Dei**, mit dem umfassenden **Ziel** der **Aufrichtung der Christusherrschaft über die ganze erlöste Schöpfung**",
- "Aus der '**Missio Dei**' allein kommt die "'**Missio ecclesiae**'".

Vicedom(G. Vicedom)의 ‘Missio Dei 신학’

- Missio Dei의 목표를 ‘하나님의 나라’다.
-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그의 창조물 중에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.
- 그러나 ‘통치’와 ‘구원’은 동일시되지 않는다.
-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.
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이거나 마귀적인 영역을 거부한다.
-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Missio Dei를 대적한다
- 세상 종교인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옛 사람에게 속해 있다
- 모든 창조물은 여전히 악마의 세력 안에 있고, 또 악마화 될 수 있다.
-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와 있지 않다.
-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.
-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Vicedom(G. Vicedom)의 Missio Dei 신학:

- 천국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이다.
 -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.
 -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죄를 멸하셨다.
 -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하게 하셨다.
 -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.
 -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을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가능하다.
 - 누구든지 죄와 우상을 버리고 돌이킬 때 성령에 의해 거듭나게 되고 새생명이 주어진다.
 - 미래적인 (noch nicht)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조한다.
 -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,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무리다.
 -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다.
 -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받는 핍박까지를 포함하여 선교라고 한다.
-
- Vicedom, G. F., *Missio Dei*, München, 1958,

올바른 선교:

-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
-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회개케하는 것
- 복음을 위하여 순교적인 증인이 되는 것
-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
- 어떠한 상황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것